

## 현대 한복변천과 영부인 한복과의 관계

조 효 숙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Changes in Modern Han-Bok and the First Ladies' Costume

Hyo-Sook Cho

Professor, Dept. of Clothing, Kyung-Won University

(2005. 6. 24 투고)

#### ABSTRACT

This study is tried to identify the changes in modern Hanbok for the past five decades through the literatures and actual materials such as the First Ladies' costume.

In Hanbok fashion, there is a trend that influenced by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just like in western fashion. After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ism,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Hanbok fashion were economic factors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textile industry and the dressing attitude of the First Ladies at that time.

In 1950s, a modified Hanbok that is easy to wear was popular. It was partly because of the west oriented atmosphere after the Korean War and mainly due to the practical dressing attitude of First Lady, Francesca.

In 1960s and 70s, former First Lady Yuk Young Soo who loved and had good taste for Hanbok led the fashion. At that time, high ranking female social leaders as well as general public usually wore Hanbok on formal occasions. Therefore, textile industry for Hanbok developed a lot and tailored shops that specialize Hanbok emerged.

In 1980s, as the economy got better, Hanbok was upgraded and it became more luxurious. Traditional Hanbok was revived through a historical investigation. Additionally, the former First Lady Lee Soon Ja helped fostering a luxurious mood as she wore a Hanbok as a formal dress.

After 1988 Olympic Games were successfully held, the importance of the traditional culture was emphasized in 1990s and Hanbok followed retro trend rigorously through the academic approaches including a dressing history. Hand painted and naturally dyed Hanboks were strong in this period. Former First Lady Kim Ok Sook's sophisticated Hanbok attire partially had effect on this mood.

However, From the late 1990s Hanbok became less popular. It was partly because the former First Lady Son Myoung Sun and Lee Hee Ho preferred western style dresses and did not play a role as Hanbok fashion leaders.

Key words: modified Hanbok(개량한복), first ladies' costume(영부인 복식), traditional Hanbok(전통한복)

## I. 서론

이천년간 한민족과 함께한 한복은 우리의 민족성과 기후풍토에 알맞게 변화, 발전되어 한국의 고유 의상이 되었으며, 다른 어떤 나라의 민속복보다 실루엣, 색채, 문양, 소재 등에서 뛰어난 미적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이후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한복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일상복이 양복으로 대체되었고 한복은 결혼이나 명절 등 특수예복의 용도로 한정되었다. 더구나 최근 세계화의 물결 속에 한복이 설 자리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첫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에서부터 현재까지 아홉 명의 영부인이 나왔다. 모두 단아한 한복차림으로 취임식에 나왔으며, 국내의 중요행사 시 항상 한복을 아름답게 입고나와 국모로서의 품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영부인의 한복착용은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 복식문화를 선양하고, 국내적으로는 한복의 패션리더 역할을 하였으며,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패션감각은 물론 가치관까지도 말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에 우리는 영부인의 한복을 통해 현대 한복의 흐름은 물론, 한국 정치·경제의 이면도 고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현대한복의 변천 과정을 문헌자료와 대통령 부인의 실제 복식자료를 통하여 재조명하고, 대통령 부인의 한복 착용이 현대 한복의 변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먼저 실물자료 및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조선시대의 전통 한복이 지난 50년에 걸쳐 현대 예복으로 변천해가는 과정을 당시의 사회, 정치, 경제 상황 등 시대적 제반 상황과 연계하여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복이라 할 수 있는 역대 영부인들이 실제로 착용하였던 현존하는 자료들을 형태 및 소재의 측면에서 조사하며 이들 자료들을 비교 검토하여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II. 현대 한복의 변천

우리나라는 19세기 말 서양문물이 유입되면서 전통적인 이념과 가치관에 획기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전통사회에서 점차 근·현대사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격동 속에 복식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눈에 띄는 변모를 겪었으니 우리의 전통복식인 한복이 양복과 이중구조를 이루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한복이 변천되며 현대사회에 수용되어온 50년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년대별로 정리하였다. 물론 해방이후부터 현대 한복 50년의 역사를 3기, 혹은 4기로 구분한 선행연구들<sup>1)</sup>이 있으나, 한복의 유행경향은 지역, 계층, 혹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므로 현대한복의 시기 구분은 지양하였다.

### 1. 1950년대

195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나라를 되찾은 기쁨으로 국민의 다수가 민족의상인 한복을 일상적으로 착용하였다. 그러나 6.25 전쟁 후 서양문화의 도입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한국여성들의 양복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져 1950년대 후반에는 한복과 양복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착용되는 상황이 되었다. 당시 우리 사회는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이처럼 양복이 확산되는 사회 분위기가 가세하여 전통한복도 편리함과 실용성을 증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수층에서는 전통한복을 활동에 편리한 모습으로 착용하였고, 일부 개혁 층에서는 서양복을 모방한 개량한복 형태로 착용하기도 하였다.

먼저 전통 한복은 저고리 길이가 길고 소매는 짧아졌으며, 진동은 넓어지고 서양복처럼 앞치짐을 많이 주어 활동성이 더해졌다. 깃과 싹, 동정의 넓이는 개화기 이후 가장 넓어졌다. 반면, 치마는 옷감의 절약과 활동의 편리함을 위하여 통이 좁고 길이는 발목이 보일 정도로 짧아져 저고리와 치마의 비율이 1:3정도로 균형미를 상실하였다. 또한 이전까지는 한지를 헝겊으로 짜서 만든 부드러운 동정에 반하여 딱딱한 종이심지를 넣은 기성품 동정이 최

초로 등장하였다. 개량한복은 저고리의 고름을 짧게 잘라 리본모양으로 매기도하고, 때로는 고름을 없애고 브로치로 대용하였다. 가슴선을 살리고자 양장식의 다투를 넣기도 하고, 소매의 진동선을 없애고 양장의 프렌치슬리브처럼 재단한 저고리도 유행하였다. 여름용 저고리는 소매를 팔꿈치까지 자르기도 하고, 치마 위에 보래로 형태의 저고리를 걸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개량한복은 1950년대 말 정부에서 의식주를 개선하고자 시행한 '신생활 운동'으로 가속화되었다.<sup>2)</sup> 의복용 소재는 한국 전쟁으로 국내 섬유 공장들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1953년까지의 미국의 원조물자나 밀수품으로 충당하였다.<sup>3)</sup> 여러 종류의 밀수직물 중에서도 한복용 옷감으로 세탁과 손질이 편리한 다후다, 나야가라, 곰보나일론 등 나일론 섬유가 크게 유행하였으며, 그 외에 고급품으로 경도양단과 홍풍양단, 경도비로드도 유행하였다. 특히 나일론은 한복에도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어 투명한 나일론으로 한복을 만들어 입어서 노출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sup>4)</sup>. 그러나 이런 수입 옷감들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도시의 상류층에서나 유행하였고 농촌에서는 아직도 국내산 무명과 모시, 베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 2. 1960년대

1960년대 초기까지는 5.16. 군부 쿠데타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불안감으로 국민들은 의생활에 관심을 보일 여력이 없었다. 1950년대 말기와 다름없이 저고리의 길이가 길고 화장이 짧으며 동정, 깃, 싹이 넓은 전통 한복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사회가 점차 안정됨에 따라 정부각료의 해외순방이 잦아지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각료회의 및 국제학술회의 등이 서울에서 개최되면서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중요한 외교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무대에서의 한복착용은 필수적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한복이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한복패션의 리더로서 우아한 한복 자태를 보여 주었으므로 일반여성들도 더욱 한복을 즐겨 착용하게 되었다. 이렇듯 1960년대 중반 이후 한복은 다시 활

성화되었고 이제부터는 전 시기의 실용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착용자의 키가 크게 보이기 위하여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고 품도 좁아지기 시작하였으며 치마는 길어졌고 치마의 폭도 직선재단에서 사선재단으로 바꾸어 전체적으로 A-line 형태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바느질 방법에서도 레이스, 춘추 비로도, 오빠루, 후로키, 등의 부드러운 천을 걸감으로 하고 걸감과 안감사이에 망사 심지를 넣은 3겹 바느질이 유행하였다.<sup>5)</sup>

1960년대 섬유산업은 혁명정부의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어 고도성장을 계속하였다. 면방직업, 견직업은 물론 인견섬유, 화학섬유업계도 기술개발을 통한 각종 의료(衣料)를 생산하고, 기계 설비를 현대화함으로써 직물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화학섬유는 1960년대를 대표하는 직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주)한국나일론과 (주)한일나일론이 63년과 64년에 최초로 나일론 공장을 준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화학공업이 본격적으로 개막되었으며, 1967년 정부의 제 2차 5개년 계획의 육성산업 대상이 되어 금융 및 세계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sup>6)</sup> 한국나일론은 '코오롱'이라는 상품명으로 새 나일론을 생산하였으며 69년에는 코오롱 양단과 코오롱 뉴똥을 생산하여<sup>7)</sup> 한복용 옷감으로 대 유행을 시켰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한복이 예복으로 활성화되자 한복용 직물로 특별히 생산된 교직물도 유행하였는데 경사는 나일론, 위사는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하였다. 또한 견섬유와 유사한 인견섬유의 기술 도입으로 레이온사를 생산하였다. 당시에 한복 소재로 금은사를 넣은 양단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으며, 견과 인견의 교직으로 짠 도이루 양단도 당시의 대표적인 한복용 직물이었다. 더불어 품질이 좋은 옥양목과 포플린도 한복소재로 유행했다.

## 3. 1970년대

1970년대 한복의 특징은 예복화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이미 시작된 한복의 예복화는 1970년대에

절정을 이루었으며 결혼·명절은 물론 사은회·일반연회·무대복 등의 파티복으로 한복이 각광을 받았다. 그러한 이유는 경제번영으로 세계 각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영부인과 외교관 및 관료 부인들이 국제 모임에서 한복을 많이 착용하게 되었고, 1959년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개최된 제8회 미스유니버스대회에서 한복이 최우수 민속의복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온 국민들이 전통한복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복의 제작형태도 가내봉제수준에서 벗어나 전문적 한복 맞춤집이 시작되었고 백화점에 한복코너가 등장하였다<sup>8)</sup>. 이 시대의 한복은 점차 실용성이 감소된 반면 장식성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갔다. 형태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은 1960년대 말기에 나타난 실루엣의 변화이다. 사선 재단법이 확대되고 치마 폭수가 증가하여 A-line의 실루엣이 강조되었으며 페티코트라는 새로운 형태의 속옷착용이 등장하게 되었다. 치마길어도 길어졌는데 이러한 형태는 활동에는 불편하나 한국여성의 체형을 보완해 주고 키가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 여성잡지 등의 매스컴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저고리의 길이는 점점 짧아져 옆길이가 거의 없는 정도인데 반하여 깃의 길이는 길어 여밈이 깊어지고 고름의 길이가 매우 길어졌다. 이와 함께 직물, 색채, 문양 등도 예전에 비해 장식하는 방법과 범위도 다양해져 대담하고 화려한 기계자수나 금박, 날염, 보석이 등장하였다.

한복업계의 호황으로 대기업들이 한복지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60년대의 한복용 직물에 화학섬유로 만든 깔깔이, 쉬폰 등의 양장 소재가 유행하였던 것이 특징이라면, 70년대는 화학섬유로 만든 양단, 공단, 유평 등의 전통소재가 유행하였고<sup>9)</sup> 그 표면에 기계자수, 금박, 날염 등으로 장식하여 화려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한복이 예복화 됨으로 화려함이 요구되었고, 둘째 경제발전과 기술향상으로 새로운 장식 기법이 보급되었으며, 셋째 한복 착용이 증가하면서 가내봉제수준에서 전문적 맞춤한복으로 발전되면서 전문 제작자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견직업도 설비와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1970년대 중반까지는 일반 한복용으로 판매되기 보다는 수출 선도사업으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다<sup>10)</sup>.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수출로 인한 경제가 좋아지면서 국내 한복시장에서도 견직물의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sup>11)</sup>. 반면에 무명이나 모시, 손명주와 같은 전통 천연 소재는 생산량이 감소하였는데 도시화 산업화로 농촌인구가 감소하여 수직기로 직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누에고치나 면화와 같은 천연 원자재 값이 급상승함에 따라 채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 4. 1980년대

1980년대 역시 한복의 예복화 고급화 경향은 계속 유지되었으나 이 시대의 새로운 변화는 전 시대에 지나친 장식성으로 흘렀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차츰 우리 고유의 멋을 살리는 방향으로 재창조된 점이었다. 더구나 1970년대부터 복식사 연구가 활발해진 영향으로 각 시대별 복식형태가 밝혀졌으며, 이러한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고증한복이 강화되었고 궁중복식이 응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복 디자인은 화려한 장식이 사라지고 점차 품위 있는 분위기를 내도록 연구되었다. 저고리의 길어도 조금씩 길어지고 저고리의 색을 치마와 달리하면서 깃과 끝동 고름을 다른 색으로 한 회장저고리가 유행하였다. 치마의 폭도 줄어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갖는 실루엣으로 변화되었다. 두루마기의 착용이 더욱 유행하였는데 긴두루마기는 물론 반두루마기도 입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0년 12월 1일부터 실시된 칼라 텔레비전의 방영은 패션계에 색채감각의 변화를 가져다주었고, 생활전반에 색상이 중요시 되면서 양복과 한복에 다양한 색채가 사용되었다. 특히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전통 한복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어 한복을 위한 전문 맞춤집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한복디자이너도 등장하였다.

한복 소재도 전반적으로 고급화되었는데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전 국민의 의생활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시대에 유행하였던 화학섬유는 사라지고 천연섬유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특히 한복

소재로 견직물이 유행하였다. 견직물 중에는 '사철끼기'라고 부르는 노방주, 생명주가 선풍적으로 유행하였는데 건물의 난방시설의 개선, 특히 아파트 생활로 인하여 얇은 직물들이 선호되었기 때문이다. '사철끼기'의 유행으로 소비자들은 한복 1벌을 맞추면 사계절을 모두 입을 수 있었으니, 한복 수요가 줄고 자연히 견직물 생산업체는 불황의 시작이 되었으며 견직물 생산업체가 신상품을 개발하지 않으니 한복디자이너도 좋은 디자인이 나오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었다. '사철끼기'가 유행하면서 직물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색상을 다양화 하고 그림이나 자수 등 2차 가공이 많아져서 금은박을 찍거나 혹은 치마폭에 산수화를 직접 그림을 그리는 회염이 많이 사용되었다.

### 5. 1990년대

1990년대에는 조선시대의 출토복식을 통하여 조선 중기의 복식이 새롭게 연구되는 등 복식사 연구가 강화됨에 따라 한복디자이너는 더욱 복고풍을 띠며 고중에 의해 디자인된 한복이 강세를 이룬다. 바느질 기법도 옛것이 재현되어 누비, 잣물림, 싹코짜기, 조각잇기, 파이핀 넣기 등이 유행되었다. 이와 함께 천연염색에 의한 자연색을 선호하여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고급 디자이너숍을 중심으로 천연염색 재현의 바람이 일기도 하였다. 또한 삶의 질이 향상되어 연령, 장소, 용도에 적합하게 복식을 착용하는 경향이 생겨 한복의 종류가 다양화 되었다. 활동을 필요로 할 때는 생활한복이라는 이름의 개량한복이 활성화 되었으며 예복으로 격식을 차려 입을 때는 치마저고리 외에 두루마기나 당의까지도 갖추어 입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복용 소재는 '사철끼기'로 불리는 4계절용 얇은 실크가 퇴조하기 시작하였고, 점차 제철에 어울리는 천연소재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여름에는 모시와 안동포를, 봄가을에는 숙고사와 자미사를 겨울에는 명주나 단종류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96년경부터는 복고풍을 표현하기 위하여 모본단 한복이 다시 유행되었고, 97년부터는 자연주의를 표현하기 위하여 옥사를 이용하여 위사방향에 슬립 효

과를 낸 옥사 생명주나 산똥 실크가 유행하였으며, 후들거림을 막기 위하여 생사와 속사를 1:1혹은 3:2의 비율로 제직하여 얇고 뽀뽀한 느낌을 준 것이 많았다. 또한 한국복식사를 연구하는 학계의 영향으로 98년부터는 조선시대의 직물 문양들을 재현한 연화문단과 운문단, 금사로 무늬를 제직한 금선단 등이 생산되어 한복 직물업계에 새로운 복고풍의 경향으로 떠올랐다.

## Ⅲ. 영부인의 한복

한복패션도 서양복 분야와 같이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시대적 배경에 따라 유행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역대 대통령 부인들의 한복 입는 성향은 한복 유행에 있어서 단연 중요한 변화 요인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영부인의 의상은 국내적으로는 한복의 패션리더 역할을 하고, 국제적으로는 그 나라의 복식문화 수준을 외국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1.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한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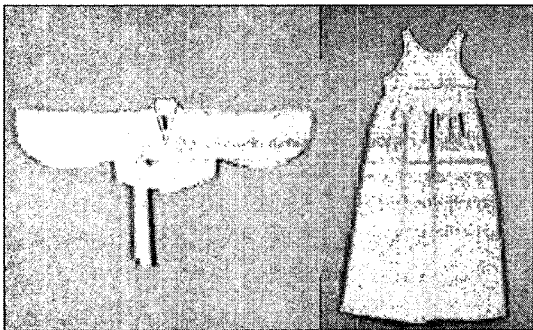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재임한 초대 대통령으로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비록 외국인의 국모였지만 국민들과의 친근감을 위하여 3차례의 취임식에 모두 한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림 2>와 같이 공식 석상이 아닌 일반 외출 시에도 비교적 한복을 즐겨 입었다. 특히 연한 옥색이나 보라색의 한복을 즐겨 입었고 워낙 검소하여 인조견이나 목면과 같이 당시에 일반 서민들이 입던 검소한 옷감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자수나 화려한 장식 없이 평범하고 소박하게 입었다. 또한 활동성이 좋은 실용적인 측면을 중요시해 개량형의 한복을 즐겨 입었다. 따라서 옷고름을 없애고 브로치를 달았으며 고무신과 버선 대신에 양말과 구두를 신었다. 치마의 폭과 길어도 짧게 하였는데 착용에 편리하자는 목적도 있었지만 옷감을 절약하고자하는 목적도 있었다.



<그림 1> 1948.7.24 초대 대통령 취임식, 사진으로 보는 한국백년



<그림 2> 이승만대통령 내외, 이화장 소장



<그림 3> 프란체스카여사의 치마와 저고리, 영부인에복으로 본 한복의 흐름

<그림 3>은 프란체스카 여사가 1950년대 말 경무대 시절에 입었던 치마저고리로 1960년 이화장으로 하여할 때에도 입었다고 한다. 치마저고리 모두 국

화무늬가 있는 옥색 은사양단으로 만들었으며 저고리의 안감은 은반건이다.<sup>12)</sup>

앞단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60년을 전후 한 한복소재의 특징은 금사 혹은 은사를 넣은 양단이 유행하였는데 대부분 100% 견직물이 아니고 견과 인견의 교직물이 많았다. 안감은 대부분 인견을 썼는데 프란체스카 여사의 한복소재는 그 시대의 일반인들의 한복 분위기를 대변하는 듯하였다. 또한 형태에 있어서도 그 시대에 개량한복이 유행하였던 바와 같이, 프란체스카 여사의 한복도 치마에 트임이 없는 개량형 조끼허리를 연결하였으며, 조끼허리에는 작은 다트가 4개 들어있어 서양의복의 입체재단을 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끼허리에 치마를 연결하는 방법도 특이하여 치맛자락이 마치 왼쪽 여밈으로 입은 것같이 보이도록 자락을 왼편으로 감아 개량형 조끼허리에 연결하였는데, 실제에는 트임이 없어 서양 원피스와 같이 머리부터 뒤집어서 입을 수밖에 없었다. 치마의 폭도 75cm 나비의 옷감을 세 폭 연결한 좁은 폭으로 모양 보다는 실용성을 중요시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당시의 한복 유행에 많은 영향을 끼쳐 개량한복 패션쇼도 열리고 많은 지도층 인사들도 개량 한복을 입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과는 달리 비교적 한복을 즐겨 입었다. 1948년, 1952년, 1956년 모두 3차례의 취임식이 있었는데, 대통령은 1948년 취임식에는 <그림 1>과 같이 한복을 입었고, 그 후 2차례의 취임식에는 양복을 입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두루마기는 고름대신 단추로 여며 입게 만든 것으로 이런 형태의 두루마기는 일찍이 1910년대부터 개화 인사들이 입기 시작하여 '개화두루마기'라고 하였으며 당시에 일반인에게도 매우 유행되었던 형태이다. 이승만 대통령 한복은 전통적 소재를 선호하였으나 형태는 프란체스카 여사와 같이 개량형을 선호하여 실용성을 중요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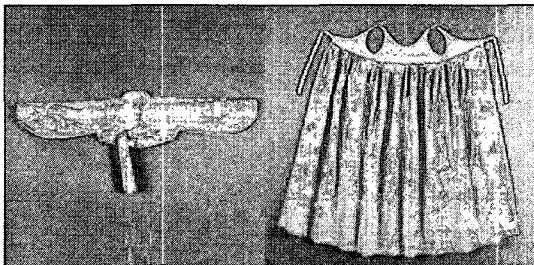
## 2. 윤보선대통령의 부인 공덕귀 여사의 한복

윤보선 대통령은 1960년부터 1962년까지 제 4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였다. 취임식 날의 공덕귀 여사는 아흔 아홉 칸 한옥의 대저택에 살아온 한국양반가

여인답게 1897년에 사대부부인의 예복으로 정해진 남치마에 옥색 저고리의 한복을 점잖게 차려입었다. <그림 4>는 취임식이 끝난 후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외출하는 모습이다. 당시는 의례용임에도 고무신이 보일 정도로 치마길이를 짧게 입었다.



<그림 4> 1960.8.30. 제4대 대통령 취임식날 저녁 외출, 조선일보



<그림 5> 공덕귀 여사의 치마와 저고리, 영부인 예복으로 본 한복의 흐름

공덕귀 여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신교육을 받은 여성이었지만, 당시의 혼란한 시대적 배경 때문에 영부인 시절에는 별로 외부와의 접촉 없이 청와대 안에서 조용히 살았으며 영부인 기간동안 그의 한복이 어떠한지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평범한 차림을 하였다.

공덕귀 여사의 한복은 치마저고리 3벌과 두루마기 1벌이 조사되었다.<sup>13)</sup> 치마저고리 3벌 중 황금색 공단에 무궁화 수가 놓인 예복 1벌, 미색 숙고사 회장저고리와 치마 1벌, 얇은 목아사에 바탕에 수놓은 목수 치마저고리 1벌이 있다. 이들의 형태는 50년대

말기의 전통형 저고리와 유사하였는데, 단지 저고리의 길이는 이미 짧아지는 추세에 있었으므로 3벌 모두 저고리 뒷길이가 29cm 전후로, 프란체스카 여사의 저고리에 비하여 약간 짧아졌고, 앞치짐을 많이 주어 앞 도련선이 많은 곡선을 이루었으며 배래도 강한 곡선을 이룬다. 전에 비하여 깃의 길이가 길어졌고 저고리 여밈이 비교적 깊이 파였으며 고름의 길이도 길어졌다.

<그림 5>의 황금색 공단 수 저고리와 치마는 의식용으로 입었는데, 5매 수자직으로 짠 공단 바탕에 무궁화 자수(기계수)가 드문드문 놓였다. 비록 의례복이지만 치마폭은 아직 좁아서 73cm 너비의 직물을 3폭 연결하여 만들었으며 옥양목으로 만든 조끼허리 형태의 치마허리를 달았다. 저고리 안감은 당시에 안감용으로 많이 썼던 인조견으로 만든 호박단으로 하였으며 치마는 안감을 넣지 않고 홀으로 하였다.

여름용으로 착용하였던 수치마 저고리는 얇은 목아사에 파스텔 톤의 고운 색으로 꽃수를 놓았으며 고름대신 브로치로 여밈을 처리하였다. 치마 역시 쪽빛 목아사에 더 짙은 색으로 수를 놓았는데 안감 없이 홀으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직물들을 '목수'라고 불렀으며 1960년대를 전후하여 여름용 한복감으로 유행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공덕귀 여사는 당시 개량한복이 유행하였던 사회 분위기와는 달리 전통형의 한복을 그대로 착용하였고, 사용한 옷감은 견직물 이외에 1960년대 초기에 유행하였던 목아사, 인조견, 나일론 등의 다양한 직물류가 포함되었다. 영부인 임기 동안에 별로 사회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한복의 유행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옷감도 어떠한 특색없이 당시 유행하였던 소재를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의 한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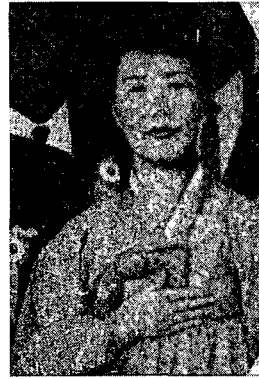
육영수 여사는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제 3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1974년 사망하실 때까지 12년간 영부인으로 재임 하였다. 그 사이 5-8대 대통령 취임식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공식행사는 물

론 사적인 생활에서도 한복을 즐겨 입었으며 역대 영부인 중에 가장 한복을 우아하게 입어서 훌륭한 한복패션의 리더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박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공식적인 모임은 물론 웬만한 사적인 모임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회 지도층 여성들도 모두 육여사와 같이 한복을 입었으며 따라서 한복용 섬유패션산업이 매우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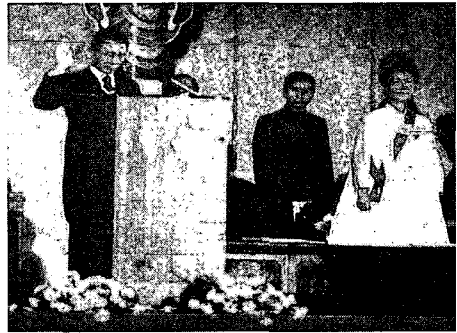
육영수 여사는 67년 취임식에 <그림 6>에서와 같이 초록색 한복을 입고 저녁 만찬에는 흰색 깔깔이로 만든 한복을 입었고 <그림 7>에서와 같이 71년, 72년 취임식에도 흰색 한복을 입었다.<sup>14)</sup> 그 외의 공식행사 예복으로는 황금색, 주황색, 미색을 즐겨 입었는데 특히 외국 방문 시에는 <그림 8>에서와 같이 무궁화나 용, 봉황을 수놓아 장식하여 화려함을 더하였다. 대부분 만찬에는 주로 흰색의 공단이나 깔깔이라 부르는 얇은 합성섬유로 만든 한복을 즐겨 입었고, 평상시용으로는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 한복을 입고 특히 물방울무늬의 한복을 좋아하였다. 워낙 흰색을 좋아하여 흰 치마에 짙은 색 저고리 혹은 짙은 색 치마에 흰 저고리와 같이 치마나 저고리 중에 하나라도 흰색을 입었다. 이러한 영부인의 한복 취향이 일반인들게 전파되어 중요한 행사에 흰색 한복을 입는 것이 유행되기도 하였다.

육여사는 한복 맞춤집에서 맞추지 않고, 대부분의 한복을 이수진이라는 할머니가 만든 것을 입었기 때문에 오히려 개성이 돋보였고 자연스러우면서 고전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다. 1960년대는 이미 한복이 예복화 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고 치마가 길어졌다. 육여사도 재임 초기에는 고무신이 보일 정도로 치마를 짧게 입은 모습이 눈에 띄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치마가 길어지고 폭이 넓어졌다. 그러나 페티코트로 치마의 부풀림을 주지 않았고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연출하였다. 저고리도 초기에는 소매가 짧고 길어도 비교적 길었으나 10여년이 지난 후 돌아가실 무렵에는 소매는 길어지고 등길이는 27cm 전후로 짧아졌다.

육영수 여사는 재임 기간이 12년이나 되고 한달에 10여벌 이상의 한복을 만들 정도로 한복을 워낙 많이 입었을 뿐 아니라 워낙 기품 있고 맵시 있게



<그림 6> 1967. 7. 2, 제6대 대통령 취임식, 조선일보



<그림 7> 1972. 12. 28, 제8대 대통령 취임식, 조선일보



<그림 8> 박정희 대통령 내외, 박근혜소장

입어서 국내적으로는 70년대의 한복 유행을 리드하였고 국제적으로는 세계무대에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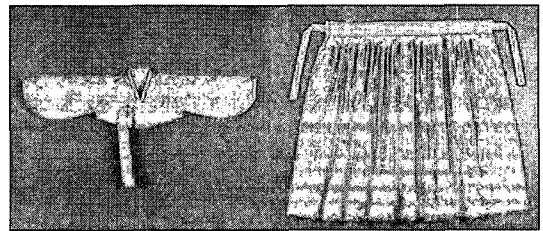
#### 4. 최규하 대통령 부인 홍기 여사 한복

최규하 대통령은 재임 기간이 1979년 12월 6일부터 1980년 8월 6일까지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고 혼란스러웠던 시절이었으므로 홍기여사의 옷차림이 화제에 오르지 않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 전통적 부덕을 지닌 조용한 성격을 말해주듯 언제나 한복을 즐겨 입었고 검소하고 소박한 차림을 좋아했다. 1979년 12월 제 10대 대통령 취임식 당일은 <그림 9>와 같이 흰색 명주바탕에 초록색의 화문이 드문드문 그려진 치마저고리를 입었으며, 그 외의 공식 행사에는 자주 장식된 미색공단 치마저고리를 입고, 저녁 만찬에는 금은사를 넣어 짙어 어두운 분홍색 은사양단 한복을 입어 연회복을 대신하였다.



<그림 9> 1979. 12  
제 10대 대통령  
취임식,  
홍기여사소장

1970년대는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였고, 한복이 예복으로 정착된 사회분위기에 따라 한복양식이 고급화·패션화 되었던 기간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홍기여사의 한복은 매우 소박하고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 한복바느질 방법에서도 나일론 안감에 망사 심을 넣어 뽀뽀하게 만든 1960년대의 방법을 고수하였고, 1970년대부터 치마폭이 넓어지면서 종래의 직사각형 재단에서 치마의 윗부분을 잘라낸 A라인 재단을 하여 치마아래의 부풀림을 강조한 디자인이 유행하였으나, 홍기여사의 치마는 연회용조차도 아직 직선 재단한 210cm의 좁은 폭이었다. 이처럼 홍기여사는 취임 후 자신을 '살림이 취미인 구식여자'라고 소개한 바와 같이<sup>15)</sup> 한복도 옛스러움을 고수하였고, 사용한 옷감도 1980년대 전후부터는 상류층에서는 안팎을 모두 본견으로 많이 하였으나 나일론 안감을 넣었으며, 색상도 눈에 띄지 않는 검소하고 수수한 색을 선호하는 등 소박하고 서민적인 특징을 보였다.



<그림 10> 홍기여사 치마, 영부인 예복으로 본 한복의 흐름

홍기 여사의 한복은 옥색 유흥, 분홍 은사양단, 황금색 자수공단으로 만든 3벌의 한복이 조사되었다. 공통적인 형태 특징은 뒷길이가 27-28cm로 약간 더 짧아졌으며 깃과 고름의 길이가 더욱 길어졌다. 저고리 3벌은 모두 3겹 바느질하였으며 치마는 좁은 폭으로 직선 재단하였고 옥양목이나 테트론의 치마허리를 달았다.<sup>16)</sup>

<그림 10>은 분홍색 은사양단 한복으로 저녁 만

찬에 주로 입었는데 1960년대부터 유행하였던 뽀뽀 이라고 부르는 옷감이었다. 한복 1벌용으로 깃, 섶, 소매 끝, 치마밑단 부분에만 은사로 은은하게 꽃무늬를 제직한 옷감이다. 저고리 안감으로는 연보라색 나일론 노방주를 넣고, 안감과 겉감 사이에는 망사 심을 넣은 세 겹 바느질을 하였다. 치마는 무늬를 활용하기 위하여 식서방향을 밑단으로 보낸 가로직으로 재단하여 폭의 이음새가 없이 한 쪽으로 만들었으며 치마허리는 테트론을 어깨끈 없이 일자로 만들어 붙였다.

#### 5.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 한복

전두환 대통령은 1980년 9월 1일부터 1988년 2월 25일까지 7년 5개월간 재임하였으며 1980년에 제 11대 대통령과 1981년 제 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

였다. 이순자 여사는 1980년 취임식에 <그림 11>에서와 같이 소재의 노방에 운봉문(雲鳳紋) 은박을 찍어 장식한 치마저고리를 입었으며, 개헌 후 1981년 취임식에는 <그림 12>에서와 같이 소재 공단 바탕에 공작과 오색영롱한 꽃들을 수놓은 공단 당의와 치마저고리를 입고 노리개를 고름에 걸어 품격 있는 예복으로서의 한복의 멋을 보였다.

이순자여사의 한복은 남치마에 옥색 반희장저고리, 은박을 장식한 소재 노방주 치마저고리, 자수 장식된 소재 공단 치마저고리와 당의 등 3벌이 조사되었다. 공통적인 형태 특징은 뒷길이가 22-23cm로 매우 짧아졌으며, 깃 너비가 좁아지고 고름의 길이가 매우 길어졌다. 치마는 폭이 넓어지고 윗부분을 잘라 사선으로 재단하여 A라인 실루엣을 나타냈다.

<그림 13>의 취임식에 입었던 소재 노방으로 만든 치마저고리는 운봉문 은박을 드문드문 찍어 단조로움을 없애고 예복으로서의 화려함을 보완하였다. 안팎 모두 본견 노방주를 사용하여 깨끗바느질하였다. 한국의 전통 복식에서 금은박을 찍어 장식하는 것은 신라시대부터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영부인의 예복에서 처음으로 은박을 찍어 우리의 옛 한복디자인을 현대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그 후 한복업계에는 이처럼 금은박을 드문드문 찍는 것이 한동안 유행하였다.

<그림 14>는 미색 공단 당의와 치마저고리일습으로 1981년 취임식에 입었던 것이다. 저고리의 깃과 고름에는 금사로 불문을 수놓았고 당의와 치마에는 공작 화문을 손수로 놓아 화려함을 강조하였다. 당의는 조선전기부터 입기 시작하여 조선말기에는 궁중여인과 사대부 부인들이 저고리 위에 입은 소매복이다. 영부인으로서의 유일하게 당의를 입어 유난스럽다는 비난도 있었으나<sup>17)</sup>, 취임식이나 외국순방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경우에 당의를 착용한 것은 조선시대에 예복으로서의 당의를 현대 한복디자인에 적용한 사례로서, 역사적 고증의 차원에서는 물론 디자인 활용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사례였다. 그 후 한복업계에서는 혼례복이나 기타 의례복에 금박 당의를 입는 것이 유행되기도 하였다.

비교적 밝은 색을 선호하였던 이순자 여사는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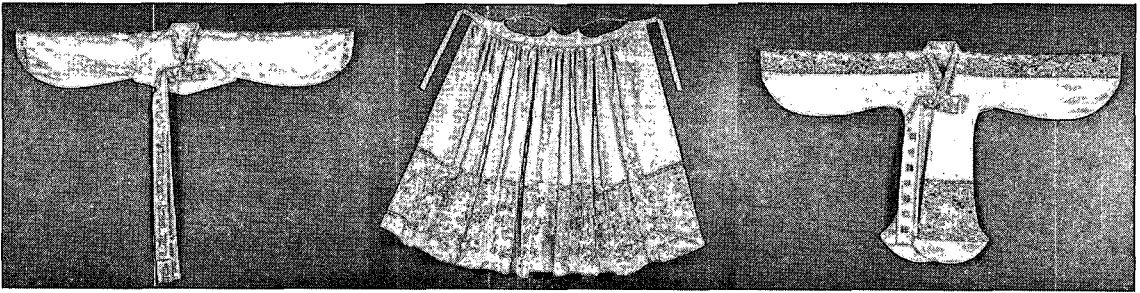
<그림 11> 1980. 9. 1 제 11대 대통령 취임식, 이순자 소장



<그림 12> 1981.3.4, 제 12대 대통령 취임식, 조선일보



<그림 13> 1981.3.4, 제 11대 대통령 취임식, 조선일보



〈그림 14〉 이순자여사의 저고리, 치마, 당의, 영부인 예복으로 본 한복의 흐름

내외의 많은 행사에 한복을 아름답게 입음으로 우리 복식의 멋을 외국에 알리고, 국내에는 한복 업계의 발전 및 한복 디자인의 다양화·고급화에 이바지하였다.

사실 이순자 여사의 한복에 대해 너무 화려하고 사치하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그것은 제 5공화국의 부정적인 정치 이미지가 영부인의 한복으로 전가된 것이 첫 번째 이유이며, 다른 하나는 1980년 12월 1일부터 칼라 텔레비전이 방영되기 시작하여 이전의 흑백 텔레비전에 비하여 한복의 화려한 색이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되어 화제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대통령 부인의 의복은 외교적으로 그 나라의 복식문화 수준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적인 퍼스트 레이디였던 재클린도 우아하고 귀족적인 옷차림으로 유명했고,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부인도 프랑스의 유명한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자국의 패션산업을 홍보하였던 것이다. 나라를 대표하는 국모로서 품위 있고 아름답게 의복을 입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결코 검소한 의복만을 입는 것이 중요한 덕목은 아니다. 이순자 여사는 영부인으로서 한복을 올바르게 입기 위하여 1980년 당시 이화여대 유희경 교수를 청와대에 초빙하여 한국복식사를 공부하였고<sup>18)</sup>, 외국 영부인의 사례들을 연구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한복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과시하였으며, 예복으로서 한복 디자인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한국 복식사에서 1980년대는 한복업계가 발전하고 한복의 고급화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로 평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여사의 한복을 멋지게

잘 입기위하여 노력하였던 점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하겠다.

## 6. 노태우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한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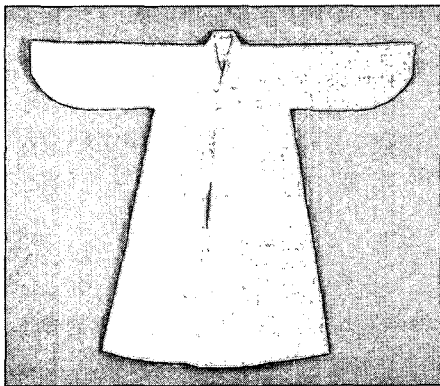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2월 26일부터 1993년 2월 25일까지 제 13대 대통령으로 5년간 재임하였다. 김옥숙 여사는 〈그림 15〉와 같이 1988년 취임식에 연한 주황색 명주로 만든 치마저고리와 같은 색으로 염색한 뉴똥 두루마기를 입어 취임식에 처음으로 두루마기를 입은 영부인이 되었다.

취임식에 입었던 저고리와 치마는 걸감은 다듬은 명주를 엮은 주황색으로 염색하였으며, 안감은 노방주로 하였다. 저고리 길이는 26cm 정도로 전 시기에 비하여 길어졌으며 치마는 38cm너비의 직물을 사선으로 재단하여 11폭을 이어 총 418cm로 매우 넓게 만들었다. 따라서 치마의 실루엣은 A-line을 이루었고 노방주와 생고사로 만든 속치마를 받쳐 입었다. 치마허리는 조끼허리 형태로 흰색의 목아사로 만들었다. 치마저고리 위에는 〈그림 16〉과 같이 동일한 색으로 염색한 뉴똥 두루마기를 입었다. 당시 두루마기의 길이는 전 시기에 비하여 비교적 길게 입는 것이 유행이었으며 걸감과 동일한 옷감으로 목도리를 만들어 목에 감아 돌렸다. 목도리의 양끝에는 같은 색의 끈사로 매듭을 묶어내려 모든 것이 동일한 색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피하고, 금은사로 연화문을 수놓아 만든 흰색 가죽 손지갑은 한국적인 분위기를 강조하였다.<sup>19)</sup>

김옥숙 여사는 청와대 시절 '보통사람'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하여 눈에 띄지 않는 차림을 하려고



<그림 15> 2004. 3. 22 제 13대 대통령 취임식, 김옥숙 소장



<그림 16> 김옥숙 여사의 두루마기, 영부인 예복으로 본 한복의 흐름

노력하였고 따라서 금박이나 자수와 같이 눈에 띄는 화려한 장식보다는 주로 자연스러운 색의 조화로 한복의 멋을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연한 미색, 흰색, 갈색, 겨자색, 회색 등의 침착하고도 가라앉은 색상의 한복을 즐겨 입었는데, 겉으로 얼듯 보기에는 중간 톤의 색상에 화려한 장식이 없어 소박해 보이나, 실제로 매우 고급의 소재를 사용하였고 독특한 염색, 바느질 기법 등에서 대통령 부인으로서 품위와 세련된 이미지를 갖게 하였다. 이를 위하여 김옥숙 여사는 한복의 색상이나 디자인을 유명 한복디자이너와 직접 의논하여 결정하였고, 손지갑이나 신발 등의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속치마와 버

선의 선택까지도 무척 세심한 신경을 썼다. 김옥숙 여사는 1990년 러시아 순방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해외나들이에서 산수화를 그려 넣은 한복을 입거나, 전통문양을 수놓은 한복을 입는 등 우리나라 한복의 아름다움을 홍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순자 여사가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예복으로서 한복디자인의 다양화 및 전통성을 알리는데 기여했다면, 김옥숙 여사는 한복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세련된 모습으로 알리는데 기여하였다고 하겠다.

또한 이 시기에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한복에도 복고풍이 유행하였다. 따라서 저고리의 길어도 조금씩 길어지고 저고리의 색을 치마와 달리하면서 깃과 끝동 고름을 다른 색으로 한 회장 저고리가 유행하였으며 덧저고리, 누비저고리, 긴 두루마기의 착용이 부활하였다. 김옥숙 여사의 한복도 저고리 길이가 길어지고 깃과 동정이 넓어진 복고풍으로 변화하였으며, 깃과 고름, 수구에 가는 선을 넣거나 잣물림, 쇠꼬짜기 등 개화기에 유행하였던 전통 기법을 활용하여 전통한복의 단아한 멋을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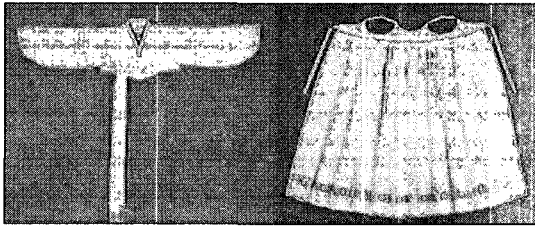
## 7.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 한복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2월 26일부터 1998년 2월 25일까지 제 14대 대통령으로 5년간 재임하였다. <그림 17>과 같이 1993년 취임식에 손명순 여사는 분홍색 명주에 꽃무늬를 수놓은 옷감으로 만든 치마저고리와 두루마기를 입고 어깨에는 두루마기와 같은 옷감에 화려하게 수 놓은 솔을 들렸다. <그림 18>은 손명순 여사의 여름용 한복으로 미국 순방시 L.A.에서 입으려고 장만한 모시치마저고리인데 그곳 날씨가 추워져 찾아가지 않고 의상실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 경운박물관 전시 '영부인 예복으로 본 한복의 흐름' 전시에 출품되었다. 옥색의 모시의 저고리이지만, 앞길은 겹으로 되어 있다. 저고리의 길이는 25.5cm이며 깃과 소매 끝, 고름에 은사와 청색의 끈사를 사용하여 징금수를 놓았다. 깃과 고름에 얇은 회색으로 선을 대어 장식하였다. 치마는 옥색의 모시 11폭을 이어 만든 흘치마로 치마하단에

은사와 청색의 끈사를 사용하여 징금수로 장식하였다.



〈그림 17〉 1993. 2. 25 제 14대 대통령 취임식날, 동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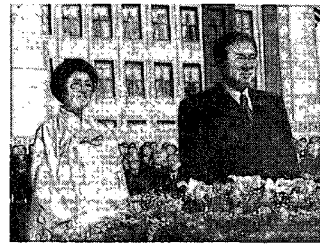
〈그림 18〉 손명숙 여사의 모시치마저고리, 영부인예복으로 본 한복의 흐름

손명숙 여사는 튀는 색상을 싫어하고 치마저고리를 동일 색으로 입는 것을 좋아하였다. 따라서 동일 색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저고리의 깃과 섹션, 도련, 수구에 가는 선을 두르고 치마저고리에 화려하게 수놓아 장식한 디자인을 매우 선호하였다.

손명숙 여사의 외모는 여성스러운 분위기로 한복이 잘 어울리는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대통령 부인들에 비하여 국내외의 공식행사에 비교적 양장을 즐겨 입었다. 특히 스탠드 칼라가 달린 박스형의 자켓 상의에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주름 치마는 손명숙 여사가 가장 즐겨 입었던 차림이었는데 이러한 영부인의 양장을 선호하는 의복태도는 상류층의 한복입기에 영향을 주어 이즈음부터 정치·경제계 부인들의 공식 회합이나 TV에 출연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한복을 착용하는 사례가 점차 줄어들었다.

## 8.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한복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제 15대 대통령으로 5년간 재임하였다. 이희호 여사는 1998년 취임식에 분홍색 명주로 만든 치마저고리와 좀더 열린 분홍색 명주 두루마기를 입었으며 목에는 목도리를 들었다(그림 19). 그러나 취임식이 끝나고 저녁 만찬 시에는 〈그림 20〉과 같이 정장 투피스의 양장차림으로 참석하였다.



〈그림 19〉 1998. 2. 25 제15대 대통령 취임식, 동아일보



〈그림 20〉 1998. 2. 26. 취임식후 만찬, 동아일보

이희호 여사가 취임식에 입었던 치마저고리와 두루마기를 조사하였는데 저고리는 분홍색 다템은 명주로 만들고 안감은 같은 색 노방주를 넣었다. 저고리 길이는 25cm 정도로 전시기와 비슷하지만 깃너비와 동정저비는 각각 4.5cm, 1.6cm로 넓어졌으며 고름이 길어지고 저고리 여밈이 올라갔다. 치마는 32cm너비의 명주 8폭을 이어 자연스런 흐름을 주었으며 역시 치마폭의 위쪽은 좁게 사선재단을 하였다. 치마허리는 걸감과 같은 명주로 만들었으며 현색의 어깨 끈을 달아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였다. 두루마기는 치마저고리 보다 열린 연분홍 명주로 만들었다. 두루마기의 안감은 걸감과 같은 명주로 하였으

며 깃, 셔, 무, 수구, 도련 끝에 조금 더 진한 분홍색의 명주로 가는 선을 둘렀다. 두루마기 길이는 113cm 정도로 전시기보다 길어지고, 깃 너비와 동정 너비도 각각 6.3cm, 2.0cm로 넓어졌으며 고름도 길어졌다.<sup>20)</sup>

이희호 여사는 역대 영부인 중에 가장 연로하였기 때문에 연한 옥색, 연한 보라색, 연한 미색 등의 온화한 색상의 명주를 선호하였다. 디자인도 복고풍의 점잖은 멋을 중요시 하였다. 그러나 청와대에 들어간 초기에 한복을 입고 골절상을 입어서 그 후부터는 한복의 멋 보다는 실용성에 목적을 두어 치마의 폭이 좁아지고, 길이도 발등 위로 올라가도록 짧

게 만들었다고 한다. 특별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장을 착용하였는데 영국의 대치수상의 옷차림을 좋아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희호 여사의 재임기간에는 한복을 입은 모습보다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양장을 한 모습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였다.

#### IV. 결론

이상으로 한국전쟁 이후 50여 년 동안 한복이 일상복에서 예복으로 정착되어가는 변천 과정을 문헌 자료와 함께 대통령 부인 복식이라는 실물자료를

<표 1> 영부인 한복이 현대한복의 변천에 끼친 영향

대통령 (재임 기간)	영부인	사회적 배경	영부인한복의 특징		현대 한복에 끼친 영향
			형태	소재	
1 이승만 1948-1960년	프란 체스카	· 정부주도 '신생활 운동' · 1956 최초 패션쇼 · 양복에 대한 관심 고조	· 편리함과 실용성에 중점 · 고름대신 브로치 사용	· 인조견, 목면, 나일론 등 실용적이고 소박한 소재	· 서양복과 접목시킨 개량 한복의 형태 유행 · 합성소재 유행
2 윤보선 1960-1962년	공덕귀	· 정치사회 불안정	· 무난하고 점잖은 한복	· 공단, 숙고사, 인조견, 나일론 등 다양한 소재	· 짧은 재임기간으로 인해 한복에 큰 영향 끼치지 않음
3 박정희 1963-1974년	육영수	· 경제성장 이룸 · 섬유산업 고도성장	· 초기: 저고리 길이가 짧고 치마폭이 좁은 전통형태 유지 · 후기: 치마길이 길어지고 A-line실루엣으로 변화	· 화섬양단 깔깔이 등 화학소재부터 공단, 유통 등 견직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	· 한복 활성화 및 한복 패션리더 역할 · 한복 애용자 증가 · 한복 섬유산업 발전
4 최규하 1979-1980년	홍 기	· 정치적 혼란	· 전통 봉제법 고수 · 검소하고 소박한 형태	· 검소한 소재	· 짧은 재임기간으로 인해 한복에 큰 영향 끼치지 않음
5 전두환 1980-1988년	이순자	· 경제적 안정 · 86 아시안게임 개최	· 궁중복식응용 · 예복으로서 한복의 다양화 · 화려한 색과 형태	· 숙고사, 명주 등 고급 견직물	· 한복의 예복화 · 한복 디자이너 등장 · 한복업계 발달 · 금은박 유행
6 노태우 1988-1993년	김옥숙	· 88올림픽 개최 ·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고조 · 복식사 연구 활발	· 세련되고 고급스런 한복 · 자연스러운 색의 조화	· 노방주에 회염(繪染)한 직물	· 한복의 고급화 · 한복 디자이너 증가 · 천연염색, 회염(繪染) 유행 · 사철개끼 유행
7 김영삼 1993-1998년	손명순	· 국제화 경향으로 문화의 중요성 대두 · 홀트복식 통한 복식사 연구심화	· 화려한 자수와 장식선 첨가	· 튀는색상 기피 · 치마저고리 동일 색상	· 공식석상에서 양장 선호 · 사회 지도층에서 한복 입는 사례가 줄어들음 · 자수와 장식선 유행
8 김대중 1998-2003년	이희호	· 세계화 불결 · 전통문화의 중요성	· 실용성우선 · 폭이 좁고 길이 짧은 치마	· 연한옥색, 분홍 등 온화한 색상 명주	· 공식석상에서 양장 선호 · 한복착용 축소 · 생활한복형태 유행

통하여 재조명하였으며, 역대 영부인들의 한복 실물 자료들을 조사하여 특성과 멋을 찾아내고, 한복 패션리더로서 역할을 연구하였다.

한복패션도 서양복과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시대적 배경에 따라 유행이 발생하는데, 해방 이후 한복 패션은 여러 배경 중에서도 섬유산업의 발전이라는 경제적 요인과 영부인의 한복 입는 복식 태도가 매우 중요한 변화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1950년대는 고름대신 브로치를 달거나 짧은 통치마를 입는 등 개량한복이 유행하였는데 6.25 전쟁 후 미국문화가 유입되어 사회전체에 만연한 서구 지향적 분위기 이외에 프란체스카여사와 같은 외국인 영부인이 실용성에 근거하여 한복을 입었던 태도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1960-1970년대는 한복을 즐겨 입으며 동시에 우아하게 잘 입는 육영수 여사가 한복 패션의 리더가 되어 일반인은 물론 사회지도층 여성들도 중요한 행사에 대부분 한복을 입었다. 따라서 건직업은 물론 인조양단, 합성양단 등 한복용 섬유산업이 매우 발달하였으며, 전문적 한복 맞춤집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는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져서 한복도 고급화를 이루었으며, 역사복식 고증을 통한 전통한복이 강화되었다. 더욱이 이순자 여사는 복식사의 학문적 근거 의하여 한복을 착용하였으므로, 한복이 예복으로서 좀 더 다양화될 수 있었고 격식을 갖추어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따라서 한복이 예복으로 정착되었고, 한복디자이너가 출현하는 등 한복업계의 고급화에 기여하였다.

1990년대는 올림픽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등 세계화 속에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시기로 한복은 더욱 더 복식사 등 학문적 접근을 통해 복고풍을 띠며, 고중에 의해 디자인된 한복이 강세를 이룬다. 바느질 기법도 누비, 잣불림, 조각 잇기 등의 전통방식이 재현되었으며 천연염색도 유행되었다. 여기에는 한복을 세련되게 입었던 김옥숙 여사의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한복착용은 점차 축소되는데 이는 손명순 여사나 이희호 여사가 양장을 선호하고 한복 패션의 리더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현대 한복의 역사는 역대 영부인의 의복

태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영부인중에도 오랜 기간 동안 재임하였던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의 영향력이 컸고 윤보선 대통령의 부인 공덕귀 여사나 최규하 대통령의 부인 홍기 여사 등은 변동기에 짧은 기간 자리하여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 모두가 한복이 우리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인식하고, 먼저 한복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우리 민족의 훌륭한 유산인 한복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영부인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이경자 (1983). 한국복식사론. 일지사, pp. 330-346.
- 황의숙 (1995). 한국여성전통복식의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여원 (1956). 우리 의식주의 개선.
- 3) 동양나일론(주) (1976). 동양나일론 10년사. 동양나일론 주식회사, p. 92.
- 4) 조선일보 (1957. 8. 8.). “어떻게 보는가 노출증.” 동아일보 (1956. 8. 23.). “올여름 양장표정 지나친 노출복의 비애.”
- 5) 이은진 (2001). 해방이후 한복용 소재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5), pp. 868-879.
- 6) 한국화섬협회 (1993). 한국의 화섬산업.
- 7) 코오롱(주) (1977). 코오롱 20年史, pp. 115-118.
- 8) 동아일보 (1977. 10. 25). 늘어나는 한복전문점.
- 9) 동아일보 (1973. 2. 13.). 생활백과.
- 10) 김상대 (1994). 진주지역 중소기업 성장전략에 관한 정책토의, 진주시.
- 11) 동아일보 (1977. 10. 25). 명절나들이 한복.
- 12) 이화장(서울시 종로구 소재) 소장 한복 조사
- 13) 윤용구 소장 한복 조사
- 14) 동아일보 (1967. 7. 2.). 잔치날의 주부 퍼스트레이디.
- 15) 고승현 (1996). 한국의 퍼스트레이디. 밀알, p. 174.
- 16) 공덕귀 여사 소장이었으나 2004년 ‘영부인 예복으로 본 한복의 흐름’ 전시 이후 경운박물관 소장.
- 17) 김유경 (1994). 옷과 그들. 삼신각, pp. 84-86.
- 18) 2005년 10월 유희경 교수 면접조사.
- 19) 김옥숙 소장 한복 조사
- 20) 이희호 소장 한복 조사